

광주문화재단 후임 수장에 쏠린 눈

현 대표 다음달 임기 만료... 응모한 4명 중 26일 1차 합격자 발표 다음달 10일 최종 선정... 문화계 "현장 밀착·소통 능력 겸비해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11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신입 대표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등 향후 후임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지역 문화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오는 11월 말에 마무리된다. 황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임기 3년의 문화재단 대표에 취임했다.

새롭게 선임될 대표 이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전 규정에도 연임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단 정관이 바뀌면서 이번부터는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여부는 현 시장의 임기와 연동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정관 변경은 시

장의 임기와 퇴임 시기를 맞춰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새 시장의 문화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 및 임명은 별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비롯해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시의회 인사 청문, 시장의 임명 절차에 따라 신입 대표가 최종 결정된다. 추천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2명, 시의회 3명, 광주시 2명을 각각 추천했다.

지난 4일부터 11까지 진행된 서류 심사에는 모두 4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1차 합격자는 오는 26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이후 오는 11월 9일 진행되는 면접에서는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기발표(PT), 심층면접이 진행된다. 업무수행 능력과 사업 재단 운영 계획에 대한 실행 역량이나 비전을 확인하는 절차

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10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문화계에서는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A 씨를 비롯해 문화기관에서 활동해온 B 씨 등이 이번 공모에 응모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계 모 인사는 "어떤 인사는 내정설 등이 있어 공모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지역 문화 발전을 감안해 전문성을 비롯해 역량, 비전, 소통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화계는 지난 2020년 신입 문화재단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내정설이 흘러나오면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때문에 당시를 반면교사로 지역문화를 견인하고 컨트롤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문화계 수장은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화계 또다른 인사는 "문화예술 현장과 밀착되고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새 대표로 선임됐으면 한다"며 "후에 내정설로 인해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여 그친다면 지역 문화계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 문화행정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웹소설 작가, 네이버 시리즈 연재 콘텐츠코리아랩 지원 프로젝트... 공화성 작가 '천마에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6일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웹소설 창작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공화성 작가의 작품 '천마에겐'이 필요하다'가 17일부터 네이버 시리즈 연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웹소설 창작 프로젝트는 광주 지역 내 예비 웹소설 작가에게 창작비, 교육·멘토링 및 콘텐츠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작품인 '천마에겐' 임행이 필요하다는 정통무협 장편소설로, 특별한 힘을 얻게 된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다.

공화성(필명) 작가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주인공이기에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게 되고, 그런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독자들이 확실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작가는 뛰어난 구성과 내용 전개의 참신함으로 합격점을 받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이후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맺고 네이버 시리즈에 런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바다에 투영된 우리네 삶의 모습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 29일까지 기획전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시간, 바다의 모습과 인간 내면을 빚어보고 성찰하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여수 엑스포아트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리고 파도소리' 기획전이 그것.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내 중견작가 6인(박미경·송수미·신수정·유경화·이민하·조수진)의 회화를 비롯해 설치, 공예 등 작품 40여점이 출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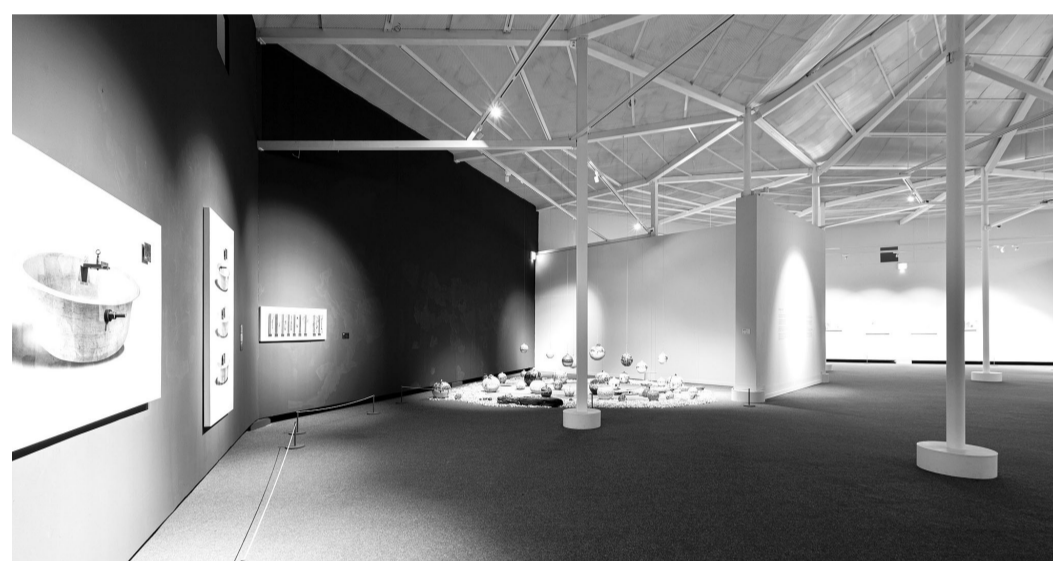
6명의 중견작가들은 창작자로서의 고뇌는 물론 개인적인 과업, 보편적 정서 등을 가로질러 맺은 과실을 선보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다는 거대한 창으로 이미지화된다는 사실과 맞닿는다. 인간 심상을 비추는 장으로 존재하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작품은 저마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작품과 아울러 여수가 지닌 역사, 해양 문화를 병렬해 살펴볼 수 있다. 오늘의 시대가 직면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는 작가들의 작품에 상징적으로 녹아들어 독특한 감성을 발한다. 이렇듯 회화, 금속공예, 도예 등 분야는 다르지만 작가들은 저마다 고유의 방법론으로 삶의 형태를 바다의 모습에 투사한다.

마치 그것은 서로의 경계를 넘어 풍파를 인식하는 바다의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하며, 한편으로 추억을 공유하며 내일로 나아가는 향개의 여정으로 초점화된다.

관람은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휴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목비엔날레 '작가와 대화'

20일 목포문예회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서 사전 예약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이 수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목포문화예술회관 2전시실에서 '작가와 대화'를 개최한다. 작가와 대화는 이진수 총감독이 진행한다. 수목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작품세계 및 수목화에 대한 개념 설명 등 총 2부, 각 50분씩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구성됐다.

1부는 '일상을 통한 전통수목의 현대적 해석과 표현'을 주제로 2016 올해의 청년 작가전에서 수상한 권세진 작가가, 2부는 '나에게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지?'를 주제로 광주교육대 미술교육과 교수인 박영대 작가가 참여한다.

작가와 대화 사전 예약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공식 누리집 팝업창 정보부니(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진수 총감독

박근식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작가와 대화"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목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을 높이고 시야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10월 말까지 목포시와 진도군 등에서 수목작품전시 및 국제제전, 각종 수목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문학동네시인선, 12년만에 200번째 발간

문학동네시인선이 2011년 첫 시집을 펴낸 지 12년 만에 200번째를 맞았다.

문학동네는 '문학동네시인선'의 200번째 시집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를 16일 펴냈다.

이 시집에는 올해 등단한 신인부터 이제 막 첫 시집을 펴낸 시인, 그리고 시력 40년이 넘는 중진

시인까지, 앞으로 문학동네시인선을 통해 시집을 펴낼 시인 50명의 신작시가 한 권에 담겼다.

일종의 티저 형식의 시집인데, 시인들의 신작시 외에 '시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수록한 것이 눈에 띈다.

답변의 조건은 한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

게 모인 시인 50명의 한 문장들은 시를 향한 가장 간결하고 절절한 사랑 고백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짧은 시다.

박연준 시인에게 시란 "짜아지지 않는 슬픔, 그 게 좋아서 점점 점점 담비는 일"이고, 신미나 시인에게는 "죽은 이의 심장으로 다시 사는 것"이며, 김연덕 시인에게는 "머물 수 없는 사랑을 위해 집을 짓는 것", 안도현 시인에게는 "꼭 짜낸 수건에 남은 물기 같은 거"다.

/연합뉴스

'혜음화랑' 강수화 작가와 만남

21일 카페 차야서 북토크

강수화 작가가 시와 사진이 담긴 작품집 '혜음화랑' 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를 연다.

오는 21일(오후 2시) 카페 차야(상사면 오실길 36)이며 주제는 '시화(詩畵) 혜음화랑 발간 및 청년예술가와의 만남'.

고은총 성악가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연이 시낭송가의 강수화 시인의 시 '출향'을 낭송한다. 또한 황희정 바이올리니스트의 '시크릿가든', 세르게이 트라파노프의 'Moldova' 연주도 마련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수화 작가

강 작가는 순천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순천교육청 공무원 대상 시쓰기 강의를 비롯해, 초등학교 대상 시쓰기, 교무행정사 인문학 특강, 교사 대상 시쓰기 강의를 해왔다.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